

#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간의 융합관련성

홍시명

청암대학교, 조교수

Convergence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Si Myung, Hong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3권 제4호 2019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4, December 2019



#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간의 융합관련성

홍시명

청암대학교, 조교수

## Convergence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Si Myung, Hong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ce that resilience has on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33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4 to 21, 2018, and analyzed with SPSS 21.0.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3.65 \pm 0.46$ ), psychological well-being( $3.74 \pm 0.56$ ) social support( $4.06 \pm 0.57$ ) and resilience( $3.79 \pm 0.47$ ) was respectively. Emotional intellig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r = .76, p < .001$ ), social support( $r = .52, p < .001$ ), resilience( $r = .75, p < .001$ ). Psychological well-be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r = .56, p < .001$ ), resilience( $r = .81, p < .001$ ).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r = .67, p < .001$ ).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were emotional intelligence( $\beta = .75, p < .001$ ), psychological well-being( $\beta = .45, p < .001$ ) and social support( $\beta = .38, p = .001$ ). The variable that had the highest impact wa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regression model was 74%( $F = 24.56, p < .001$ ).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programs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Key words** : Students, Nursing,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resilienc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이 발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졸업 후 직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기로서 대학 생활동안 자신이 결정한 것에 의해 행동하고 책임지며 적응하는 발달단계가 된다[1]. 간호대학에서는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여 간호사로서의 핵심역량을 갖추고 직업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간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의 교양과 교내전공수업, 임상실습, 교과외 활동 등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2,3].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자아존중감 저하, 정서적 변화, 스트레스,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고[4] 또한 교우 간의 배타적이고 치열한 경쟁적인 관계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5]. 나아가 간호사가 되어서도 과중한 업무와 부담감은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못하고 이직의 사유가 된다[6].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탄력성’을 합친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발달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학습 가능하다고 한다. 회복탄력성은 반드시 역경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성이 아닌 누구나 힘든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축적된 성공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안녕감을 증진시킨다[6,7]. 학업과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회복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의 내적요인으로, 첫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확인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8]. 정서지능은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학업성취를 높이고 원만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임상간호사로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9]. 둘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인간이 개개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지의 총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게 하는 사고방식이다[10].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학생이나 일반 초기 성인과 비교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11]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외적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 심리적인 부정적 측면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환경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을 말한다[1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 친구 등의 도움, 원조와 격려 등의 사회적 상호관계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정서지능[4,9,14], 스트레스[15,16], 임상수행능력[16,17], 자기통제력[18], 대학생활적응[2,19,20], 우울[6,21], 심리적 안녕감[22] 등이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내적자원인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과 외적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함께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 간의 관계와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간의 융합관련성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 4)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였을 때 180명이 요구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33부를 배부하였고 233부 모두 회수되어 이를 최종 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정서지능

Wong과 Law[23]가 개발한 정서지능척도(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JS)를 Hur[24]가 번역한 정서지능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

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인 자기정서의 이해 4문항, 타인정서의 이해 4문항, 정서조절 4문항, 정서활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ur[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 2) 심리적 안녕감

Joseph 등[25]이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도구를 Jeoung과 Kim[2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2개 하위영역인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 6문항,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ung과 Kim[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3) 사회적 지지

Park[27]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Cho[28]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는 .96이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4) 회복탄력성

Shin 등[29]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 R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9개 하위영역인 원인분석력 3문항, 감정통제력 3문항, 충동통제력 3문항, 감사하기 3문항, 생활만족도 3문항, 낙관성 3문항, 관계성 3문항, 커뮤니케이션 능력 3문항, 공감능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등[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S시 C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자가 수집하였다.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수하였다. 회수할 때는 회수 봉투를 제공하여 밀봉 후 제출하도록 하였고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거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과정에서 자료수집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와 함께 첨부한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자의에 따라 연구에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연구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다.

#### 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209명(89.7%), 연령은 21세가 172명(73.8%),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가 166명(71.2%)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는 '건강'이 217명(93.1%), 부모님의 경제상태는 '중'이 205명(88.0%), 종교는 종교없음이 158명(67.8%), 형제·자매수는 '1명'이 121명(51.9%)이었고 여가활동정도는 '많지 않음'이 170명(73.0%)로 각각 높았다. 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 보장'이 109명(46.8%),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79명(76.8), 대학성적만족도는 '불만족'이 162명(69.5%)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4	10.3
	Female	209	89.7
Age	20	11	4.7
	21	172	73.8
	22	11	4.7
	23	16	6.9
	≥24	23	9.9
Marital status	Married	2	0.9
	Single	231	99.1
Living status	Live with parents	166	71.2
	Don't live with parents	67	28.8
Health status	Healthy	217	93.1
	Unhealthy	16	6.9
Parents' economic status	High	8	3.4
	Middle	205	88.0
	Low	20	8.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continued)  
(N= 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Religion	None	158	67.8
	Buddhism	5	2.2
	Christianity	59	25.3
	Catholic	11	4.7
Siblings	0	8	3.4
	1	121	52.0
	2	86	36.9
	3	14	6.0
	≥4	4	1.7
Leisure activity	Much	63	27.0
	Not much	170	73.0
Reasons for application	Employment rate	109	46.8
	Interest	60	25.8
	RPS*	53	22.7
	High school results	7	3.0
	Other	4	1.7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79	76.8
	Non-satisfaction	54	23.2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71	30.5
	Non-satisfaction	162	69.5

\* RPS=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surroundings

## 2. 대상자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정서지능점수는 평균평점 3.65±0.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평균평점 3.74±0.5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점수는 4.06±0.5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점수는 3.79±0.4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Resilience-related Variable Characteristics (N= 233)

Variable	M±SD	Min~Max
Emotional intelligence	3.65±0.46	1.93~4.67
Psychological well-being	3.74±0.56	1.94~4.88
Social support	4.06±0.57	2.04~5.00
Resilience	3.79±0.47	2.26~4.93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건강상태( $t=2.99, p<.001$ ), 여가활동( $t=3.52, p=.001$ ), 전공만족도( $t=3.36, p=.001$ ), 대학성적만족도( $t=3.67,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상태에서 ‘건강’이 건강하지 않음보다, 여가활동에서 ‘많음’이 많지 않음보다, 전공만족도와 대학성적만족도에서는 ‘만족’이 불만족보다 회복탄력성이 각각 더 높았다(Table 3).

## 4. 대상자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 $r=.76, p<.001$ ), 사회적 지지( $r=.52, p<.001$ ), 회복탄력성( $r=.75, p<.001$ )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지지( $r=.56, p<.001$ )와 회복탄력성( $r=.81, p<.001$ )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 $r=.67, p<.001$ )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Table 4).

##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24.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p<.001$ ), Durbin-Watson 검정결과 1.77로 2 근처에 있어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공차한계(Tolerance)는 .38-.7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확대지수(VIF)도 1.000-2.586으로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정서지능( $\beta=.75, p<.001$ ), 심리적 안녕감( $\beta=.45, p<.001$ ), 사회적 지지( $\beta=.38, p=.001$ )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설명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 나타났다.  
들이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을 74% 설명하는 것으로

**Table 3.**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3)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3.87±0.42	0.88	.382
	Female	3.78±0.47		
Age	20	3.53±0.60	1.31	.266
	21	3.80±0.46		
	22	3.64±0.33		
	23	3.79±0.43		
	≥24	3.87±0.52		
Marital status	Single	3.79±0.47	0.87	.387
	Married	4.07±0.10		
Living status	Live with parents	3.79±0.46	0.19	.853
	Don't live with parents	3.78±0.48		
Health status	Healthy	3.81±0.45	2.99	<.001
	Unhealthy	3.46±0.53		
Parents' economic status	High	3.51±0.46	2.39	.094
	Middle	3.81±0.46		
	Low	3.67±0.51		
Religion	None	3.78±0.48	0.15	.928
	Buddhism	3.80±0.74		
	Christianity	3.82±0.43		
	Catholic	3.76±0.34		
Siblings	0	3.66±0.53	1.03	.393
	1	3.81±0.46		
	2	3.74±0.47		
	3	3.88±0.45		
	≥4	4.12±0.36		
Leisure activity	Much	3.96±0.49	3.52	.001
	Not much	3.72±0.44		
Reasons for application	Employment rate	3.81±0.51	1.76	.133
	Interest	3.86±0.41		
	RPS*	3.70±0.45		
	High school results	3.48±0.17		
	Other	3.67±0.15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3.85±0.45	3.36	.001
	Non-satisfaction	3.60±0.46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3.95±0.38	3.67	<.001
	Non-satisfaction	3.71±0.48		

\* RPS=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surroundings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elated Variables with Resilience

(N=233)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Resilience
	r( $\rho$ )	r( $\rho$ )	r( $\rho$ )	r( $\rho$ )
Psychological well-being	.76(<.001)	1		
Social support	.52(<.001)	.56(<.001)	1	
Resilience	.75(<.001)	.81(<.001)	.67(<.001)	1

Table 5. Factor Affecting Resilience

(N=233)

Variables	$\beta$	t	p	Adj.R <sup>2</sup>	F	p
Emotional intelligence	.75	6.49	<.001			
Psychological well-being	.45	3.66	<.001	.74	24.56	<.001
Social support	.38	3.25	.001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은  $3.65 \pm 0.46$ 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한 Lee 등[4]의 연구에서  $4.96 \pm 0.82$ 점(7점 만점), Kim과 Park[9]의 연구에서  $5.36 \pm 0.80$ 점(5점 만점)이었다는 결과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로 엄밀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이 높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24]. 정서지능은 개인의 삶에서 행복감을 높이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처음 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1학기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으므로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3.76 \pm 0.56$ 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등[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3.82 \pm 0.53$ 점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한 Kim[15]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3.99 \pm 0.57$ 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Jo와 Park[11]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이 타 전공학생이나 일반 초기 성인과 비교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비교적 낮았고,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간호사로서 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4.06 \pm 0.57$ 점(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Park[9]의  $4.13 \pm 0.54$ 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 친구, 교수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지지의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므로 [13] 본 연구 결과에서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지가 중요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친구와 교수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지정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3.79 \pm 0.47$ 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4]의 연구에서  $3.70 \pm 0.44$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다른 도구를 사용한 Kim과 Park[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2.68 \pm 0.48$ 점(5점만점), Shin과 Chun[16]의 연구에서는  $3.58 \pm 0.39$ 점(5점만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회복탄력성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한 반면, 이들 연구는 강인함, 인내력, 낙관주의, 지지,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2개 측정도구에 대한 반복연구와 타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건강상태, 여가활동, 전공만족도, 대학성적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9], Shin과 Chun[16]의 연구와 사회복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과 Moon[30]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는 일치하였고, 여가활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4]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이 많은 학생이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4], Kim과 Park[9], Shin과 Chun[16]의 연구와 사회복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과 Moon[30]의 연구와 본 연구는 일치하여 전공을 불문하고 전공만족도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교와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성취감과 적응 및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서지능과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 학생이 높은 회복탄력성을 나타낸다는 Lee 등[4]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낮으며 회복탄력성이 낮다는 결과는 Jee와 Kim[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을 74% 설명하였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정서지능( $\beta = .75, p < .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4]의 연구에서 정서지능( $\beta = .39, p < .001$ ), 심리적 안녕감( $\beta = .31, p < .001$ )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beta = .46, p < .001$ ), 감성지능 순( $\beta = .17, p = .004$ )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온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Jee와 Kim[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ta = .41, p < .001$ ).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을 통해 준비된 간호사로 간호현장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서부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공감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춰 교과과정과 교과외 활동을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융합관련성을 파악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 정서지능은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향상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되며 간호사가 되어서도 임상생활의 적응과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개 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표집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와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Lee YW, Lee YJ.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university student life adjustment.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2005;35(4):664-671.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4.664>
2. Kim YH.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1):104-113.
3. Ko JK, Park YI, Kim JA, Chung MS, Bang KS, Choe MA, et al.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4):663-67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63>
4. Lee YE, Kim EY, Park SY.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7;23(3):385-393.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5. Bae JL. A experience of the nursing studen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999;8(2):256-267.
6. Jee YJ, Kim KN.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6;6(12):19-27.
7. Kim JH. Resilience. Seoul: Wisdomhouse; 2011. p.50-55.
8. Salovey P,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90;9:185-211.
9. Kim NH, Park SY.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3):194-202.
10.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84;95:542-575.
11. Jo GY, Park, HS.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160-169.
12. Lee GW, Moon IO, Park S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3;14(2):15-27.
13. Bae SY. The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17(20):113-14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0.113>
14. Kim MJ.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18;16(3):23-32. DOI: <https://doi.org/10.22678/JIC.2018.16.3.023>
15. Kim EA. Convergence study on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3):91-9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3.091>
16. Shin MJ, Chun YE.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2):19-3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19>
17. Lee HJ, Lee HY, Kang KJ.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17;12(1):425-437. DOI: <http://dx.doi.org/10.21097/ksw.2017.02.12.1.425>
18. Kim SY.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1): 253-262.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1.12.1.253>
19. Lee JS.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0):253-260.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20. H HS, Kim HY.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6;6(2):221-234.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2.38>
21. Park HH. The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resilience on cognitive failur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4): 323-333.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6.12.4.323>
22. Lee YE, Kim EY, Park SY.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7;23(3):385-393.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23.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13(3):243-274.
24. Hur G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p.1-202.
25. Joseph S, Maltby J, Wood A M, Stockon H, Hunt N, Regel S. The 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PWB-PTCQ):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012;4(4):420-428.
26. Jeong AR, Kim J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6;21(1):195-224.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6273>
27. Park JW. A study to development scale of social suppor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85. p.1-150.
28. Cho MS.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p.1-115.
29. Shin WY, Kim MG, Kim JH.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09;20(4):105-131.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88607>
30. Son DS, Moon YH.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ilience of social welfare major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11; 16:48-69.